

심판주 하나님 앞에서

요한계시록 20:11~15

【인도자를 위한 예화】

‘인디언 기우제’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할 때 내는 최대의 노력과 인내를 일컫는 말입니다. 이 기우제는 아메리카 애리조나에 거주하는 호피족으로부터 유래하였습니다. 호피족이 머무는 땅은 사막 기후로 인해 강수량이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씨를 뿌린 후 그들은 기다릴 수밖에 없는 처지였습니다. 기다려도 비가 오지 않을 때는 비를 내려달라고 제사를 지냈는데, 그들이 드린 제사는 매우 특별했습니다. 그들이 기우제를 드리면 반드시 비가 내렸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것일까요? 일반적인 제사는 일회성에 그치는 경우가 많지만, 호피족의 기우제는 다른 제사와 다르게 비가 내릴 때까지 계속해서 드렸기 때문입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아름다운 발’이라고 검색하면 세계적인 발레리나 강수진 씨의 발가락을 찍은 사진이 가장 많이 나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발’에 선정된 그녀는 발레리나의 삶을 위해 하루에 적게는 15시간, 많게는 19시간씩 연습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매일 지루하고도 치열했던 반복적인 훈련은 그녀를 세계적인 발레리나로 우뚝 서게 해주었습니다. 성도의 삶은 오늘을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치열한 오늘을 살 때 결국 하나님 심판의 보좌 앞에서 기쁨과 감사의 찬송을 부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도는 죄를 멀리하고 주님의 길을 걸으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 고군분투해야 합니다. 성도로 사는 나의 일상은 어떤 모습인지 나누어 보세요.

【배경 이해하기】

요한계시록의 피날레인 최후 심판이 등장합니다. 충신과 진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 하나님 말씀이라는 이름을 가지신 분이 승리를 의미하는 백마를 타고 내려오십니다(19:11, 13, 16). 피 뿌린 옷을 입으신 그분은 그리스도가 분명합니다(19:13). 자신의 죽음으로 원수들에게서 승리하신 어린양은 사탄의 수하인 짐승과 그와 함께 행하던 거짓 선지자들과 추종자들을 붙잡아 처벌하시고(19:20), 모든 죄의 근원인 사탄을 심판하십니다. 하늘에서 땅으로 내쫓긴 옛 뱀, 마귀,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꾀하는 자는(12:8~9) 땅에서조차 패배해 무서겅에 던져져 결박당합니다(20:2~3). 사탄이 쫓겨난 그 땅에서 환난과 핍박 유혹에서 믿음을 지킨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하는 왕권이 시작되고 이를 첫째 부활이라 말합니다(20:4~5). ‘살아서’, ‘살아나서’라는 말은 그리스도의 재림 전 영적 부활을 의미합니다. 거듭난 성도들이 먼저 부활하고, 교회의 머리이신 주님께 속하여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에 속한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계시록은 모든 역사의 끝에서 악은 반드시 극복될 것이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이루어질 새 창조를 통하여 종말과 동시에 회복을 이루실 하나님의 끈질기고 끊임없는 사랑을 드러냅니다.

【말씀 나누기】

관찰과 묵상 I

요한이 환상 가운데서 본 하나님은 어디에 앉아 계시나요?(11절)

요한은 크고 흰 보좌 위에 앉으신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크고 흰 보좌가 등장합니다. 흰색은 하나님의 정의(공의)를 표현하는 색으로 거룩과 성결을 뜻하고, 크고 흰 보좌는 하나님의 심판과 주권과 통치와 영광을 의미합니다(4~5장; 고후 5:10). 보좌가 갖는 시대적 의미는 로마 황제가 앉은 보좌를 배경으로 합니다. 당시 세상의 중심은 로마였습니다. 그중에서도 중심은 황제가 앉은 보좌였습니다. 그러한 시대적 배경에서 계시록은 진정한 보좌에 앉으신 이는 하나님이심을 선언합니다. 그렇기에 11절에 등장하는 크고 흰 보좌가 갖는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로마는 세상의 중심이 아니며, 그 중심인 황제의 보좌 또한 심판과 통치와 영광의 보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시며 모든 심판과 통치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고, 세상의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4~5장). 최후 심판에 등장한 이 크고 흰 보좌는 세상의 모든 심판과 통치가 오직 하나님과 어린양에게 있음을 분명히 합니다.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사라지고, 그 자리마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11절)라는 표

현은 최후 심판이 묘사된 6:14, 16:20의 표현과 거의 동일 합니다. 21:1의 의미를 살펴볼 때 이 표현은 최후 심판의 때에 전 우주적인 심판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적용과 나눔 I

하나님이 온 세상과 내 마음을 다스리신다는 사실을 언제, 어떤 경우에 깨닫게 되는지 나누어 보세요.

온 우주 만물의 진정한 통치자는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심판과 영광의 하늘 보좌를 마치 자기 것인 것처럼 여기므로 세상을 속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심판의 보좌가 나타나는 마지막 날에는 모든 흑암의 존재는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입니다. 밋모섬에 유배되어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연약한 요한에게는 하나님과 어린 양이신 주님이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것이 기쁘이고 힘이고 소망이었을 것입니다. 이사야는 웃시야왕이 죽던 해에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시고 그 웃자락이 성전에 가득한 환상을 봅니다(사 6:1). 당시 유다 백성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삶을 거부하며 심판이 필요한 불의한 삶을 선택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이사야가 본 주의 웃자락이 성전에 가득한 환상은 하나님의 통치가 여전히 이 땅에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그분의 보좌를 다른 이에게 양보하신 적이 없습니다. 창세 전부터 종말을 거쳐 영원까지 오직 하나님만이 그 자리에 앉아 계실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는 자기 마음의 보좌에 어떤 존재나 대상도 앉혀서는 안 됩니다. 마음의 보좌에 하나님이 앉아 계신 인생은 믿음을 지키고 증인의 삶을 살며 어떤 환경과 상황에서도 유일한 왕이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의지하며 살아야 합니다.

관찰과 묵상 II

보좌 위에 앉으신 이 앞에 펼쳐져 있는 ‘책들’과 또 ‘다른 책’은 각각 무엇을 가리키나요?(12절)

‘책들’은 죽은 자들의 행위가 기록된 책들을, ‘다른 책’은 생명책을 가리킵니다.

요한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았습니다. 그때 땅과 하늘이 그분 앞에서 피하여 간데없어집니다. 여기서 ‘피하여’라는 말은 ‘도망하다’라는 뜻으로, 한순간에 사라졌다는 뜻입니다. ‘간데없더라’라는 말은 ‘발견할 수 없었다’라는 뜻으로 완전히 소멸하였음을 뜻합니다. 하나님이 죄로 가득한 땅과 하늘을 심판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책들과 생명책이 펼쳐져 있다고 합니다(20:12).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 즉 누구나 그 보좌 앞에 서서 심판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책들’은 심판을 의미하지만(단 7:10), ‘생명책’은 진실한 성도의 구원을 보증합니다(단 12장). 영원한 심판을 피하는 생명책의 구체적인 이름은 ‘어린양의 생명책’입니다(21:27). 하나님 심판의 보좌 앞에 선 모든 사람은 생전에 행한 모든 행위로 심판을 받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도 비그리스도인도 모두 심판의 기준은 그들의 행위입니다. 성경은 여러 구절을 통해 행한 대로 심판받음을 말합니다(시 62:12; 롬 17:10; 롬 2:6; 벰전 1:17).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로워져(롬 3:28)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됩니다.

적용과 나눔 II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에 따라 심판받는다라는 말씀을 들을 때, 나는 어떤 마음이 드는지 나누어 보세요.

최후 심판이 있을 때는 온 우주와 세상이 흔적조차 없이 사라지지만, 그 가운데 사라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영원히 타오르는 불못입니다. 생명책에 기록된 거룩한 성도는 하나님 임재가 가득한 나라에서 어린양과 함께 영원히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는 영원히 불못에 거하게 될 것입니다. 특히 심판의 기준이 ‘자기 행위’이기에 이 말에 많은 사람이 걱정과 두려움을 가집니다. 이 말을 잘못 이해하면 선행이나 공로를 많이 쌓아 구원에 이른다고 이해할 수 있기에, 바르게 잘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경은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는 방법 중 한 가지로 ‘이기는 것’(3:5)을 언급합니다. 성도의 이기는 어린양의 옳은 행위를 통하여 이긴다는 뜻입니다. 본래 우리는 쫓정이 같은 존재입니다. 찌꺼서 불에 던져져 태워 없어질 존재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영접한 후에는 참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접붙은 가지가 되어 그분과 함께 영생을 누리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 접붙은 가지인 성도가 신경 써야 할 것은 예수님께 잘 붙어 있는지를 점검하고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과 연합한 삶을 살 때, 성도는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자기 행위에 따라 심판받는 심판대를 은혜로 통과할 수 있습니다.